

— F-131 —

고형암의 뇌전이시 임상양상 및 예후

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치료방사선과학교실*

남은미¹, 주미순, 이석, 성주명, 이순남, 장승희*, 이경자*

목적 : 고형암의 뇌전이시 1년 생존율은 15%정도로 예후가 나쁘다. 고형암의 뇌전으로 고식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임상양상과 생존기간을 분석하고 예후인자를 분석하였다.

방법 : 1987년 1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고형암의 뇌전으로 고식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대상 환자의 중앙연령은 63세(25세-89세)였고 남녀비는 2:1이었다. 종양의 원발병소, 진단당시 뇌전이 동반 유무, 전신수행상태(PS), 신경학적 이상 유무, 타장기 전이 유무, 뇌전이 병변수에 따라 생존기간을 비교하였다.

결과 : 원발병소로는 폐암이 41예(선암: 20예, 소세포폐암: 12예, 편평상피세포폐암: 6예)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암이 5예, 유방암이 4예, 원발병소불명암이 4예이었다. 뇌전이 증상은 두통이 26예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된 환자는 37예(61.7%)로 근력 약화가 27예, 의식 변화가 15예, 구음장애 6예, 안구마비 3예가 있었다. 뇌전이 당시 타장기 전이가 동반된 경우는 43예로 폐, 폐, 간의 순이었다. 전예에서 3000cGy(1200-5000cGy)의 고식적 방사선치료를 받았고, 3예는 방사선치료 후 재발되어 2차 방사선치료를 받았다. 방사선치료 후 신경학적 증상은 72.5%에서 호전되었다. 전체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4개월(0.5개월-37개월)이었고 1년 생존율은 16.6%, 2년 생존율은 5.0%였다. 중앙진단 당시부터 뇌전이가 동반된 경우는 26예(43.3%)였으며 뇌전이가 진행 또는 재발성으로 나타난 경우(n=34) 첫 진단후 뇌전이가까지의 기간은 18개월(2개월-92개월)이었다. 중앙생존기간은 뇌전이만 있는 군이 9개월로 타장기 전이가 있는 군의 3개월에 비해 유의하게 생존기간이 길었다(p=0.0017). 원발암, 진단당시 뇌전이 동반 유무, PS, 신경학적 이상 유무, 뇌전이병변수에 따른 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다.

결론 : 고형암에서 뇌전이는 나쁜 예후인자이나 뇌 단독전이는 타장기 전이 동반에 비해 예후가 양호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치료로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.

— F-132 —

악성심낭삼출의 임상적 특징과 예후

서울대학교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정주영*, 방수미, 변재호, 장훈문, 김철호, 허대석, 방영주, 김병국, 김노경

서론 : 악성심낭삼출은 종양의 심낭내 침범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며, 심한 경우 심낭 압진을 유발하며, 환자의 삶의 질 및 예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.

목적 : 본연구진은 악성종막액에 대해 흉막강내 OK-432의 주입이 효과적임을 관찰한 바 있어, 악성심낭삼출액에 대한 OK-432의 심낭내 주입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.

방법 : 1991년 1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악성종양환자 중 조직 혹은 세포진검사상 악성심낭삼출로 증명된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인 연구로 분석했다.

결과 : 대상환자는 총 31명으로 남녀비는 각각 17, 14명였고, 연령은 27-72(중앙값 56.5)세이며, 중앙추적기간은 35개월이었다. 심낭압진은 28예(90.3%)에서 보였다. 기저암종은 폐암, 원발불명의 전이선암이 각각 21예(67.7%), 7예(22.6%)였다. 기저암종 및 세포진에서의 조직학적 결과는 동일했으며, 선암, 편평상피세포암이 21예(67.7%), 8예(25.8%)였다. 악성심낭삼출에 대한 치료는 심낭천자만 시행한 경우(13예, 41.9%), 심낭천자 및 심낭유착술(12예, 38.7%), 심낭창형성술(2예, 6.5%), 심막절개술 및 심낭유착술(2예, 6.5%), 심막절개술만 시행한 경우(1예, 3.2%) 등이 있었다.

대상 환자 중 심낭창형성술을 받았거나, Tetracyclin 등 다른 경화제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28예 중 OK-432를 사용한 환자가 14예, 다른 치료법을 선택한 환자가 14예였다. OK-432를 사용한 환자에 대해서 5-10KE의 OK-432를 투여했다. OK-432에 의한 심낭유착술 후 합병증은 등통(1예, 7.1%), 발열(1예, 7.1%), 기타(1예, 7.1%) 등이 나타났고, 나머지(11예, 78.5%)는 없었다. 총생존기간은 OK-432를 사용한 군이 중앙값 8.3개월, 사용하지 않은 군은 중앙값 8.26개월이었고,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

결론 : 악성심낭삼출의 주요 기저암종은 폐암이었고, 주요 조직학적 종류는 선암이었으며, OK-432로 심낭유착술을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 사이에 총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다.